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을 중심으로*

최 윤 호

가톨릭대학교 / 석사 졸업생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완벽성향 척도(APS-R)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군집을 분류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재검증하고, 이어서 사회부과 완벽주의(SPP)를 군집변인으로 추가하여 외부에서 부여되는 높은 기준에 따른 군집 분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군집을 분류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이 도출되었다. <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군집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보다 삶의 만족과 자존감 수준은 높고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았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추가하여 군집을 분류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I>,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비완벽주의>,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이 도출되었다. 기존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I>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II>로 세분화되었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에 비해 삶의 만족, 자존감, 우울, 불안의 측면에서 더 부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과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완벽주의, 군집분석, 완벽성향 척도(APS-R), 사회부과 완벽주의

* 본 연구는 최윤호(2019)의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의 원천을 중심으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Tel : 02-2164-4469, E-mail : woon@catholic.ac.kr

전 세계 23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때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MORI, 2016). 능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Twenge, 2014; Verhaeghe, 2012), 인정을 얻기 위한 방략으로써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Curran & Hill, 2019). Curran과 Hill(2019)은 41,641명의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학생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분석을 연구를 통해 지난 27년(1989~2016) 간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수준이 선형적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내 바 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Burns, 1980), 다양한 장애와 증상, 증후군의 핵심적인 취약점이라는 점에서(Flett & Hewitt, 2002) 주의 깊게 다뤄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일반적으로 완벽주의란 무결함을 지향하고,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Flett & Hewitt, 2002;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Stoeber & Otto, 2006). 완벽주의가 처음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임상가들이 완벽주의의 부적응성에 주목하면서 부터였기에(김윤희, 서수균, 2008), 초기 학자들은 완벽주의를 부적응적인 단일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이해하며 정신병리나 부적응적 심리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Burns, 1980; Ellis, 1958; Hollender, 1965; Horney, 1951). 그러나 90년대 들어 완벽주의를 부적응적인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자성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다차원적 측정도구의 개발로 이

어졌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a; Slaney & Johnson, 1992).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이하 FMPS),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이하 HMPS), Slaney, Rice, Mobley, Trippi, 그리고 Ashby(2001)의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 Scale-Revised; 이하 APS-R)이 있다.

FMPS는 완벽주의의 개인적 특성 측면에 중점을 둔 척도로 여섯 개의 하위차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개인적 기준’, 실수와 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의 질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모가 높은 기대를 건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부모의 기대’,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모가 비난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부모의 비난’, 질서정돈과 조직화에 대한 선호 경향을 반영하는 ‘조직화’가 있다. HMPS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완벽주의적 행동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완벽주의를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히 평가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중요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완벽을 기대하는 경향을 반영하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APS-R은 완벽주의의 정의적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는 척도로 세 개의 하위차원을 가지고 있다. ‘높은기

준'은 자신의 수행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불일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실제로 지각하는 자기 모습 간에 불일치를 느끼는 경향을 반영하며, '정돈'은 조직화되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이 등장한 이후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며 완벽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Stoeber & Otto, 2006). 최근의 주된 연구 동향은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가치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있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Rice, Ashby, & Slaney, 1998; Stumpf & Parker, 2000).

완벽주의를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연구들은 주로 차원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차원적 접근방식이란 완벽주의 척도들의 여러 하위차원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차원은 연구자별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Chang, Watkins, & Banks, 2004), '긍정적 성취욕구'와 '부적응적 평가염려'(Frost et al., 1993),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건강한 완벽주의'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Stumpf & Parker, 2000)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벽주의의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에 속하는 하위차원들이 연구 별로 상이하여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Stoeber & Otto, 2006).

완벽주의를 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흐름이 있는 한편, 완벽주의의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완벽주의자들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있어왔다(Dickinson & Ashby, 2005; Rice & Slaney, 2002; Sironic & Reeve, 2012). 집단적 접근으로 불리는 이 접근에서는, 주로 군집분석을 통해 하위유형을 구분한다.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징을 갖는 표본들끼리 동일한 군집에 분류하는 분석 방법이다. 차원적 접근과 비교했을 때 집단적 접근이 가지는 이점은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집단 간 특성을 파악하므로, 개념의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각 집단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통해 상담장면에서 효과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박현주, 정대용, 2010). 하지만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져 왔으며(Methikalam, Wang, Slaney, & Yeung, 2015; Mobley, Slaney, & Rice, 2005; Sironic & Reeve, 2012; Slaney et al., 2001), 국내에서 활성화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김민선, 서영석, 2010; 김현희, 김창대, 2011; 박현주, 정대용, 2010; 이아람, 이정운, 2015; 정상목, 이동귀, 2013). Mobley 등(2005)이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처럼, 국내에도 완벽주의 군집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완벽주의의 하위유형을 밝힌 국내외 연구들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는 FMPS와 APS-R이 있다. Parker(1997)는 FMPS를 사용하여 미국 영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 완벽주의, 신경증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로 이루어

진 세 군집을 도출하였고, Rice와 Lapsley(2001)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FMPS를 사용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 비완벽주의자로 군집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도 박현주와 정대용(2010)이 FMPS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적응적 완벽주의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 비완벽주의자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FMPS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이 존재하는데, Slaney와 Johnson(1992)은 FMPS의 하위척도가 완벽주의의 본질적인 속성보다는 완벽주의의 발생 기전이나 완벽주의로 인한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며 그 타당성을 지적하였고, Chen, Hewitt과 Flett(2017)은 유럽계와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FMPS를 사용한 연구들을 비교한 결과, 아시아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 더 많이 의심하고, 실수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며, 부모의 기대나 비난 또한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며 FMPS가 문화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APS-R은 완벽주의의 정의적 속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척도로써 제작되었다(Slaney & Johnson, 1992). APS-R의 하위척도인 ‘높은기준’은 완벽주의의 핵심적인 특성임에 연구자들 간 이견이 없고, ‘불일치’의 경우 불일치 이론(Higgins, 1987)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기에 이론적 기틀이 공고하다. 다만 ‘정돈’ 하위척도는 최초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연구결과 적응적 완벽주의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를 분류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제안된 바(Rice & Ashby, 2007), 대부분의 군집분석 연구에서는 ‘높은기준’과 ‘불일치’만을 가지고 군집을 분류하고 있다. APS-R을 사용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완벽주의

군집은 일관적으로 적응적(Adaptive), 부적응적(Maladaptive), 비완벽(Non-Perfectionists)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높은기준’ 점수는 높지만 ‘불일치’ 점수는 낮은 군집으로, 자신이 설정한 성취기준이 높긴 하나 자신의 수행 수준이 이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높은기준’ 점수와 ‘불일치’ 점수가 모두 높은 군집으로,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준에 자신의 수행 수준이 부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비완벽주의는 ‘높은기준’ 점수와 ‘불일치’ 점수가 모두 낮은 군집으로,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지도, 자신의 수행 수준에 괴리감을 느끼지도 않는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활용하여 각 군집의 특성 비교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김수연, 2005; Methikalam et al., 2015; Wang, 2010), 삶의 만족을 덜 느낄 뿐 아니라(Rice & Ashby, 2007; Wang, Yuen, & Slaney, 2009), 우울과 불안은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thikalam et al., 2015;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 Wang, 2010).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특성은 비완벽주의 군집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 Wang, 2010), 평균학점이나 자존감, 성취동기와 같은 긍정적 심리적 특성은 유의하게 높았다(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Rice & Slaney, 2002; Wang, 2012). 이와 같이 APS-R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류한 연구들은 군집유형의 개수나 하위군집들의 특성 측면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APS-R의 ‘높은기준’과 ‘불일치’를 주

척도로 활용하여 군집을 분류하고자 한다.

APS-R을 활용하여 군집을 분류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서구권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군집(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이 도출됐지만,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동양권 연구(Wang, 2012; Wang, Slaney, & Rice, 2007)에서 기존의 세 군집 이외에 ‘높은기준’ 점수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유의하게 낮지만, ‘불일치’ 점수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네 번째 군집이 새로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기존 서구 연구들에서 ‘높은기준’과 ‘불일치’ 차원이 서로 부적상관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정적상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Rice, Ashby와 Gilman(2011)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음에도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적인 자기 사이에 큰 괴리감을 나타내는 이 군집을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 군집’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의 경우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나 비완벽주의 군집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Wang, 2012; Wang et al., 2007).

새로운 군집의 출현을 Wang 등(2007)은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는데, 개인보다 가족이나 타인을 더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각했을 때도 불일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써 해당 연구에서 네 번째 군집의 ‘개인지향 성취동기’ 점

수가 비완벽주의자 군집과는 차이가 없지만 다른 두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은 반면, ‘사회지향 성취동기’ 점수는 다른 두 완벽주의 군집과는 차이가 없지만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즉 이들이 외부의 인정에 동기화 된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이루어진 후속 연구에서 Rice 등(2011)은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군집 해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는데, 4군집 해법이 잠재적인 연구가치를 지닌 것은 맞지만 완벽주의자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여전히 3군집 해법이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3군집 해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3군집과 4군집 해법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APS-R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수연(2005), 정상목과 이동귀(201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PS-R을 사용하여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군집을 도출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덜 우울하고 지연행동을 적게하며, 행복과 자존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김수연(2005)의 경우 척도를 원 제작자인 Slaney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후 타당화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상목과 이동귀(2013)의 경우 박현주(2009)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긴 했지만 분석 시 사용한 표본 수(N=85)가 선행연구들의 표본 수(N=300 내외)에 비해 현

저히 적다는 점에서, 타당화된 척도와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서 제시했듯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개인보다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개인의 기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Triandis, 2001, Wang et al., 2007; Yeh & Hwang, 1999)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군집 분류 시 ‘높은기준’의 기준으로 개인내적인 기준과 외부에서 부여된 기준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완벽주의 군집분류 양상 및 각 군집의 특성을 보다 명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군집 변인인 APS-R의 ‘높은기준’ 척도는 기준이 부여된 원천이 내적인지 외적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여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을 군집 변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하위척도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완벽주의적 기준을 측정할 뿐 아니라,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선생님, 동료, 연인 등 폭넓은 외부적 원천의 영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기에(Perera & Chang, 2015), 개인내적 기준과 구별되는 완벽주의적 기준의 외부적 원천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추가로 활용하여 군집을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군집 별로 차이를 비교할 심리적 특성은 우울, 불안,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하였다. 박주연 등(2017)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 자해나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서 완벽주의 군집과 우울, 불안 수준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적응지표로, 완벽주의의 적응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넘어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이 네 변인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차용된 변인들로서, 연구 간 비교의 타당성 확보에도 이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변인으로 APS-R의 ‘높은기준’, ‘불일치’를 사용했을 때, 완벽주의 군집분류 양상과 군집 별 특성 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군집 변인으로 APS-R의 ‘높은기준’, ‘불일치’, 그리고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사용했을 때, 완벽주의 군집분류 양상과 군집 별 특성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수업에서 집단으로 모집되었다. 설문 배부 전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개인정보 이용 및 자발적 참여와 비밀 보장 등에 대해 고지한 뒤 참여자 동의하에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 완료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430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41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한 나머지 38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134명(34.8%), 여성 251명(65.2%)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1.92세($SD=2.12$)였다.

측정 도구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

연구참여자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laney 등(2001)이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 Scale)에 불일치(discrepancy) 척도를 추가하여 개정한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을 박현주(2009)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K-AP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높은기준(high standards) 5문항, 불일치(discrepancy) 10문항, 정돈(order) 4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기준 문항의 예로는 “내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불일치 문항의 예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처럼 만족할 수 없다”, 정돈 문항의 예로는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하위척도 중 ‘정돈’ 척도는 적응적 완벽주의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를 구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제안에 따라(Rice & Ashby, 2007) 선행연구들에서도 사용을 지양해왔기에, 본 연구에서도 제외하기로 하였다. 문항 별 점수는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7점(매우 동의함)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높은기준’과 ‘불일치’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Slaney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85, .92로,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

는 .77, .84로, 본 연구에서는 .80, .93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외부에서 부여된 높은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a)이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한기연(1993)이 국내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하위척도가 존재하며, 각 하위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45문항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한다” 등이 있다. 문항 별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에서 부여되는 기준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Hewitt과 Flett(1991a)의 연구에서는 .87,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76,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군집 별 삶의 만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와 Griffin(1985)이 제작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국내에서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별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는 .87, 차경호(2001)의 연구에서는 .77,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군집 별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RSE)를 국내에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등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는 .79,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는 .89,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우울

군집 별 우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성향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국내에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대부분)으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성향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Radloff(1977)가 선행연구들을 고찰했을 때는 연구에 따라 .85에

서 .90의 범위로,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군집 별 불안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국내에서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상태 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태불안은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고, 특성불안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특성불안 2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특성불안’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Spielberger와 Gorsuch(1983)이 선행연구들을 고찰했을 때는 연구에 따라 .86에서 .95의 범위로, 한덕웅 등(1993)의 연구에서는 .89,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통계량과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완벽주의 군집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양한 변인들을 조합하여 동질적인 하위집단끼리 분류하는 탐색적 분석방법으로써(Borgen & Barnett,

1987),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표준화된 군집 변인에 위계적(hierarchical) 군집화 방법인 Ward법과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적용하여 군집의 수와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산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가까운 관찰값끼리 순차적으로 묶어나가며 군집화하는 방법이다(김기영, 전명식, 1991). 2단계에서는 비위계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방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산출된 군집의 수와 군집의 초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군집별 사례를 할당하였다. 비위계적 군집분석은 미리 결정된 군집에 각 관측값들을 할당한 후 주어진 판정기준에 의해 이를 재할당하는 과정을 통해 군집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손건태, 1998).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위계적 군집분석만을 사용했을 때 멀리 이탈된 관측값들이 군집형성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규모가 큰 자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김민선, 서영석, 2010; 허명희, 2007).

셋째, 도출된 군집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측정치가 군집 별로 유의하게 분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군집 간 삶의 만족, 자존감, 우울, 불안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높은기준과 불일치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30, p<.01$). 이는 두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385$)

	1	2	3	4	5	6	7
1. 높은기준	-						
2. 불일치	.30**						
3. 사회부과 완벽주의	.25**	.54**					
4. 삶의 만족	.06	-.48**	-.32**				
5. 자아존중감	.07	-.65**	-.51**	.69**			
6. 우울	.11*	.55**	.51**	-.48**	-.64**		
7. 불안	.11*	.66**	.57**	-.55**	-.77**	.76**	
<i>M</i>	4.64	3.53	3.46	4.18	3.51	1.68	2.23
<i>SD</i>	1.05	1.13	.82	1.11	.70	.49	.51
왜도	-0.11	0.33	0.36	0.15	-0.30	1.10	0.44
첨도	-0.34	-0.41	0.87	-0.21	-0.26	0.84	-0.11

주. * $p<.05$, ** $p<.01$

던 기존 서구권 연구들(Ashby & Gnilka, 2017; Grzegorek et al., 2004; Rice & Ashby, 2007; Rice & Slaney, 2002)과 달리,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던 동양권 연구들(이승희, 이동혁, 2014; Wang et al., 2007, 2009)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 군집(2변인)

군집유형 분류

완벽성향척도 개정판(APS-R)으로 군집을 분류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APS-R의 높은기준(high standards)과 불일치(discrepancy) 하위척도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군집변인을 표준화($M=0$, $SD=1$)하고 Ward의 방법과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와 덴드로그램을 고려했을 때 3군집 해법과 4군집 해법이 모두 가능했지만, 3군집 해법보다 4군집 해법의 군집화 일정표 계수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4군집 해법이 3군집 해법보다 하위군집 내 표본 간 동질성이 더 크다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4군집 해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누어진 군집을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해당하는 군집으로 각각 할당된 결과, 군집1은 100명(26%), 군집2는 78명(20.3%), 군집3은 94명(24.4%), 군집4는 113명(29.4%)으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군집 별 프로파일에 따라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1, 2는 군집3, 4에 비하여 ‘높은기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완벽주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이 두 군집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불일치’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군집1의 불일치 점수는 전체 군집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군집2의 불일치 점수는 전체 군집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군집1을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 군집’, 군집2를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높은기준’과 ‘불일치’ 점수가 군집들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 ‘비완벽주의(Non-Perfectionism)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의 ‘높은기준’ 점수는 두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낮지만, ‘불일치’ 점수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나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대만 연구에서 도출된 네 번째 집단의 프로파일(높은기준 저, 불일치 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 Rice 등(2011)의 제안에 따라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타당화 목적으로, 분류된 군집에 따라 높은기준과 불일치 수준이 유의하게 나누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의한 다변량 효과가 나타났으며(Wilks' $\Lambda=.10$, $F(6, 760)=271.61$, $p<.001$, $\eta^2=.68$), 높은기준에 대한 일변량 효과($F(3, 381)=280.96$, $p<.001$, $\eta^2=.69$)와 불일치에 대한 일변량 효과($F(3, 381)=297.84$, $p<.001$, $\eta^2=.70$) 또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높은기준 점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일치 점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및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군집변인 통계량 및 다변량분석 결과(2변인) (N=385)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적응적 완벽주의 (N=100)	부적응적 완벽주의 (N=78)	비 완벽주의 (N=94)	부정적 자기평가 (N=113)	F	Scheffe
	M(SD)	M(SD)	M(SD)	M(SD)		
높은기준	0.73(0.60)	0.99(0.56)	-1.12(0.58)	-0.39(0.54)	271.61** (280.96**)	2>1>4>3
불일치	-0.68(0.56)	1.31(0.63)	-0.86(0.53)	0.41(0.49)	(297.84**)	2>4>1,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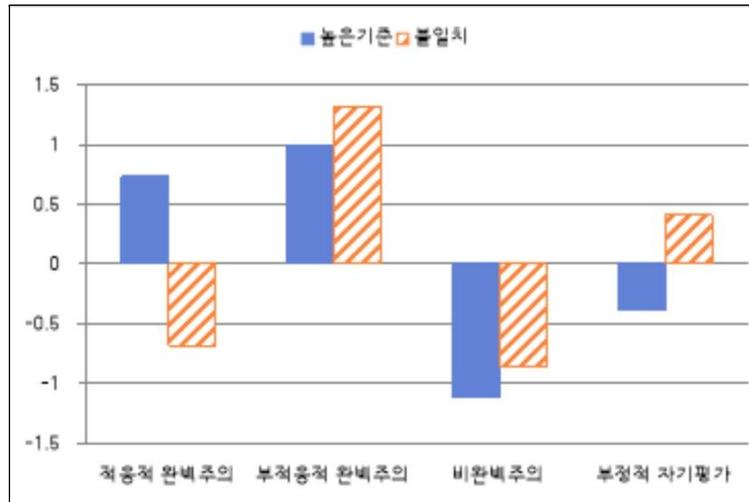


그림 1. 높은기준, 불일치에 따른 완벽주의 군집유형(2변인)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

군집에 따라 삶의 만족, 자존감, 불안, 우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수들을 표준화($M=0$, $SD=1$)하고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군집별 심리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응적 심리특성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이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심리특성을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모두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표 3.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2변인) (N=385)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Scheffe
	적응적 완벽주의 (N=100)	부적응적 완벽주의 (N=78)	비 완벽주의 (N=94)	부정적 자기평가 (N=113)		
	M(SD)	M(SD)	M(SD)	M(SD)		
삶의 만족	0.54(0.95)	-0.49(0.92)	0.27(0.96)	-0.37(0.81)	28.595**	1, 3>4, 2
자존감	0.69(0.73)	-0.66(0.93)	0.32(0.93)	-0.42(0.80)	52.429**	1>3>4, 2
우울	-0.44(0.68)	0.75(1.18)	-0.48(0.70)	0.27(0.90)	40.960**	2>4>1, 3
불안	-0.52(0.77)	0.81(0.95)	-0.50(0.84)	0.31(0.83)	53.084**	2>4>3, 1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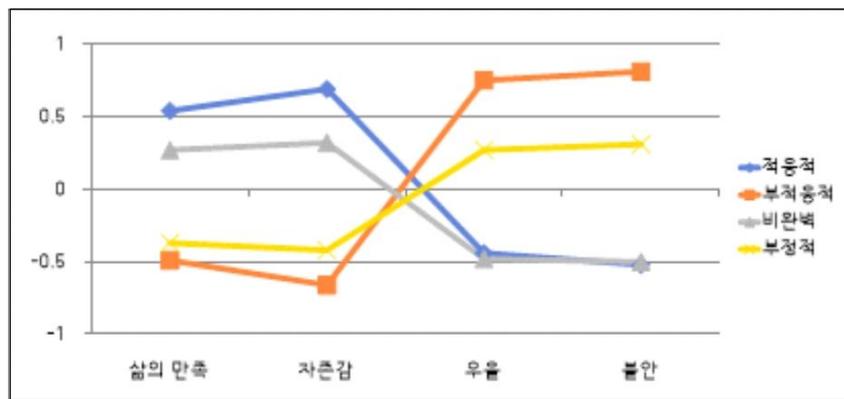


그림 2.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2변인)

났다.

종합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에 비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높고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비완벽주의 군집보다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보다 우울과 불안이 유의하게 높기에,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에서 군집을 나

열해보자면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완벽주의 군집(3변인)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 특히 외부에서 부여되는 기대가 완벽주의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PS-R의 높

표 4. 군집 별 군집변인 통계량 및 다변량분석 결과(3변인) (N=385)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적응적 완벽주의 (N=80)	부적응적 완벽주의 I (N=40)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N=76)	비 완벽주의 (N=75)	부정적 자기평가 (N=114)				
	M(SD)	M(SD)	M(SD)	M(SD)	M(SD)				
높은기준	0.56(0.58)	0.80(0.75)	0.96(0.50)	-1.16(0.58)	-0.55(0.56)	F	Scheffe		
불일치	-0.87(0.51)	1.45(0.70)	0.71(0.69)	-0.96(0.50)	0.26(0.52)			146.95**	3, 2, 1>5>4
사회부과 완벽주의	-0.71(0.75)	1.78(0.70)	0.17(0.61)	-0.79(0.66)	0.28(0.55)			(189.96**)	2>3>5>1, 4
						(196.12**)			
						(133.78**)	2>3, 5>1, 4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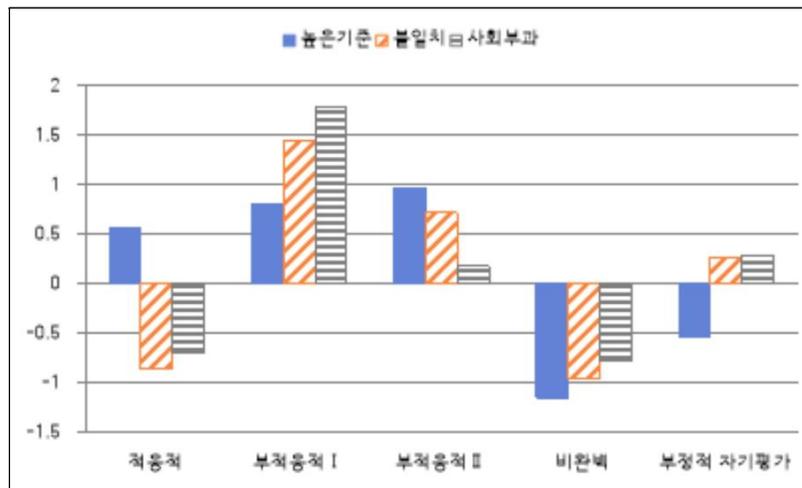


그림 3. 높은기준, 불일치,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따른 완벽주의 군집유형(3변인)

은기준(high standards)과 불일치(discrepancy),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척도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군집변인을 표준화($M=0, SD=1$)하고 Ward의 방법과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와 덴드로그

램을 고려했을 때 3군집 해법과 5군집 해법이 제안되었다. 이 중 3군집 해법의 프로파일에서는 기존 연구들과의 연속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5군집 해법의 프로파일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된 프로파일(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 부적응)과 연속성을 지녔기에, 이론적 기대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5군집 해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누어

진 군집을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비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해당하는 군집으로 각각 할당된 결과, 군집1은 80명(20.8%), 군집2는 40명(10.4%), 군집3은 76명(19.7%), 군집4는 75명(19.5%), 군집5는 114명(29.6%)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명은 선행연구와 앞 전 2변인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하였다. 군집1, 2, 3은 군집4, 5에 비하여 '높은기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완벽주의 군집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군집1은 '불일치' 점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점수가 군집들 중 가장 낮았기에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 3은 '높은기준'과 '불일치'가 함께 상승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프로파일을 나타냈는데, 군집2의 '불일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군집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있어, 군집2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I (Maladaptive Perfectionism I) 군집', 군집3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Maladaptive Perfectionism II) 군집'으로 세분하여 명명하였다. 군집4는 '높은기준', '불일치', '사회부과 완벽주의' 점수가 전체 군집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완벽주의(Non-Perfectionism)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5의 '높은기준' 점수는 완벽주의 군집들에 비해 낮지만, '불일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점수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나 비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대만 연구 및 앞 전의 2변인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네 번째 군집과 유사한 프로파일이었기에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타당화 목적으로, 분류된 군집에 따라 높은기준, 불일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유의하게 나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다변량 효과가 나타났으며(Wilks' Λ = .07, $F(12, 1000) = 146.95, p < .001, \eta^2 = .59$), 높은기준에 대한 일변량 효과($F(4, 380) = 189.96, p < .001, \eta^2 = .67$), 불일치에 대한 일변량 효과($F(4, 380) = 196.12, p < .001, \eta^2 = .67$),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일변량 효과($F(4, 380) = 133.78, p < .001, \eta^2 = .59$) 또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높은기준 점수는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I/II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일치 점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및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점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및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및 비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군집의 프로파일을 전체적으로 개괄해보면, 직전 연구에서 도출된 4군집 프로파일과 맥을 같이 하는 가운데,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만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라 두 군집으로 세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

군집에 따라 삶의 만족, 자존감, 불안, 우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점수들을 표준화($M=0, SD=1$)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군집 별 심리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응적 심리특성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및 부정적 자기평가

표 5.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3변인) (N=385)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F	Scheffe
	적응적 완벽주의 (N=80)	부적응적 완벽주의 I (N=40)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N=76)	비 완벽주의 (N=75)	부정적 자기평가 (N=114)		
	M(SD)	M(SD)	M(SD)	M(SD)	M(SD)		
삶의 만족	0.64(0.96)	-0.82(0.90)	-0.07(0.85)	0.32(1.00)	-0.32(0.80)	24.578**	1>4, 3, 5>2
자존감	0.84(0.68)	-1.02(0.96)	-0.11(0.78)	0.45(0.91)	-0.45(0.77)	52.500**	1, 4>3, 5>2
우울	-0.55(0.60)	1.30(1.12)	0.09(0.93)	-0.48(0.79)	0.18(0.86)	39.963**	2>5, 3>4, 1
불안	-0.71(0.67)	1.32(0.95)	0.22(0.75)	-0.58(0.83)	0.27(0.80)	60.254**	2>5, 3>4, 1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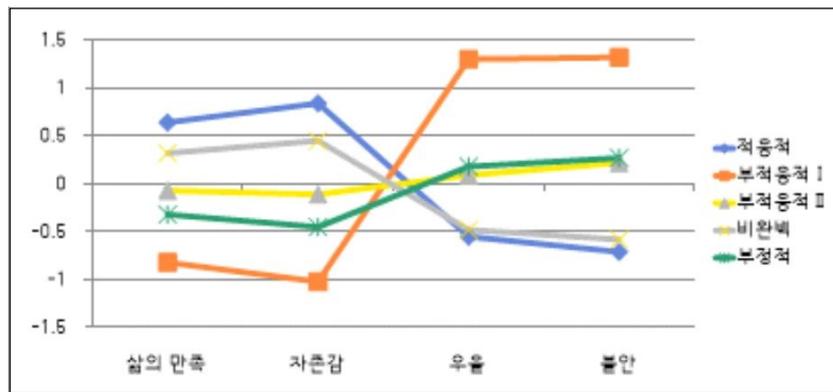


그림 4. 군집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3변인)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및 비완벽주의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및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심리특성을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모두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및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이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과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이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은 전체 군집 중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가장 낮고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에서 나열해보자면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과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순으로 나타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순서가 각 군집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APS-R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류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고, 이후 외부에서 부여되는 기준을 반영하는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변인으로 추가하여 군집을 분류함으로써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완벽주의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총 385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완벽주의 군집유형을 분류하고 각 군집 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S-R의 하위차원인 ‘높은기준’과 ‘불일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를 재검증한 결과, 네 가지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서구권 연구(Grzegorek et al., 2004; Methikalam et al., 2015; Rice, Ashby, 2007; Wang et al., 2009)의 3군집해법(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이 아닌 동양권 연구(Wang, 2012; Wang et al., 2007)의 4군집해법(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 부정적)을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출된 네 군집은 기존의 적응적 완벽주의(높은기준 고, 불일치 저), 부적응적 완벽주의(높은기준 고, 불일치 고), 비완벽주의(높은기준 저, 불일치 저), 부정적 자기평가(높은기준 저, 불일치 고) 군집의 프로파일과 부합하는 바, 각각의 군집 명칭을 승계하였다.

군집 별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삶의

만족 수준은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이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에 비해 높았다. 자존감의 경우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완벽주의 군집이 높았으며,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과 불안 수준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이 높았으며,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비완벽주의 군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군집 별 삶의 만족, 자존감,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김수연, 2005; Methikalam et al., 2015; Rice, Ashby, 2007; Wang, 2012; Wang et al., 2007)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부정적 자기평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순으로 볼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가장 많은 참여자가 포함되었으며,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사이에 끼어있는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이다.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완벽주의 군집은 FMPS와 HMPS를 모두 사용한 이아람과 이정윤(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주도형 완벽주의 군집’이라는 명칭으로 최근 소개된 바 있지만, APS-R을 사용한 국내 연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본인이 지니고 있는 기준은 낮지만 그 낮은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일치감을 느낀다는 것은, 실제 그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기준이 아닌 외부에서 부여된 성취압박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부의 기대를 자신의 기준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간

접적인 증거로써 상관분석에서 도출된 높은 기준과 불일치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들 수 있다. 다수의 동서양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 상관을 보고하였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은 동양권 연구(이승희, 이동혁, 2014; Wang et al., 2007, 2009)에 한정된다. 높은기준과 불일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개인이 기준을 세울 때 항상 자신의 능력 범위 이상의 기준을 세운다는 이야기 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 중 하나로 외부에서 부과된 기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PS-R의 ‘높은기준’, ‘불일치’와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다. 군집변인이 추가되었지만 군집 프로파일은 앞 전 프로파일과 대부분 일치하는 바, 각각의 명칭을 ‘적응적 완벽주의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 ‘비완벽주의 군집’,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군집의 경우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영향을 받아 두 군집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판단, 수준 I 과 수준 II로 구분하였다. 군집변인이 추가되었음에도 프로파일 양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동양권의 4군집 해법에 유력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삶의 만족, 자존감, 우울, 불안 수준을 바탕으로 각 군집의 심리적 적응성을 판단하자면 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부정적 자기평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I 군집 순으로 볼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군집일수록 심리적 적응성은 낮은 반비례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며, 이는 완벽주의자의 적응성은 높

은 기준이나 자신의 수행 수준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이 부여된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은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과 비교했을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고, 불일치 수준은 오히려 유의하게 높았지만, 심리적 특성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이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보다 내적인 동기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그리고 이동귀(2009)는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군집을 분류한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더라도 내적인 동기가 높을 경우 심리적 어려움 비교적 덜 경험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이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에 비해 높은기준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볼 때, 내적 동기 수준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의 경우 APS-R에 따른 완벽주의 군집유형이 3군집이 아닌 4군집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네 번째 군집은 가장 많은 참여자를 포함함으로써, 해석적·임상적 가치가 큰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포함하여 군집을 재분류함으로써, 이 네 번째 군집의 핵심 요소가 외부에서 부과되는 기준(기대)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완벽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방식 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적응적 완벽주의’ 내담자의 경우, 주변의 압박이나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현재 당면한 과업에서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개입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제해결 중심적인 기법이나,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활용한 상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I’ 내담자의 경우, 내외적으로 부여되는 만성적인 압박감과 괴리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를 촉발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주변(부모, 중요 타인 등)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검증, 타당화, 무조건적 수용 등 지지적인 기법들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내담자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 I 유형의 내담자와 같이 현재 사건보다는 외부 기대에 대한 압박이나 괴리감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겠지만, I 유형보다는 자아강도나 기능수준이 준수할 것이기에 지지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찰에도 비중을 두어 비합리적인 신념 파악이나 가족 역동 등을 함께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정적 자기평가’ 내담자의 경우, 외부의 기대나 압박감이 내재화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Sironic과 Reeve(2012)는 이 군집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방어기제로 억압이나 부인을 주로 사용하기에 높은기준은 자각하지 못하고 불일치만 자각하는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먼저 자각할 수 있도록 계슈탈트나 마음챙김 기법을 활용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에 한국의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에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에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군집분석은 탐색적인 분석방법으로, 군집 수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군집 분류 시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을 구분하는 점수 기준(절단점)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절단점을 도출해낸다면 임상적 함의가 증대될 것이다.

넷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II 군집과 부정적 자기평가 군집의 경우, 프로파일은 다르나 심리적 특성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내적 동기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두 군집의 성격에 대해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특성은 주로 개인내적인 특성에 한정되어있어 대인관계적 특성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변인을 추가하여 군집의 특성을 구체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 전명식 (1991). Sas 군집분석. 서울: 자유 아카데미.
-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39-56.
- 김수연 (2005).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감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현희, 김창대 (2011).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평가염려, 개인기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박주연, 전상원, 김은진, 신동원, 오강섭, 신영철, 임세원 (2017). 한국 직장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및 불안증상의 특성. *대한불안학회지*, 13(2), 148-155.
- 박현주 (2009). Almost perfect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31-149.
- 박현주, 정대용 (2010). 상담일반: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 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975-991.
- 손건태 (1998). 기상 및 환경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34(3), 497-504.
- 이승희, 이동혁 (2014). 완벽성향 척도 개정판 (aps-r)의 구인타당도. *교사와 교육 (구 교육논집)*, 32(1), 27-40.
- 이아람, 이정운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군집유형. *상담학연구*, 16(3), 215-231.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상목,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하위집단의 특징: 수동적/능동적 지연행동, 행복, 우울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857-875.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지*, 9(1), 7-26.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505-512.
- 허명희 (2007). SPSS statistics 분류분석. 서울: 데이터솔루션.
- Ashby, J. S., & Gnilka, P. B. (2017).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perceived stress: Group differences and test of a coping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106-111.

- Borgen, F. H., & Barnett, D. 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56-46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hang, E. C., Watkins, A., & Banks, K. H. (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102.
- Chen, C., Hewitt, P. L., & Flett, G. L. (2017). Ethnic variations in other-oriented perfectionism's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uicide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504-509.
- Curran, T., & Hill, A. P. (2019). Perfectionism is increasing over time: A meta-analysis of birth cohort differences from 1989 to 2016. *Psychological Bulletin, 145*(4), 410-429.
- Dickinson, W. L., & Ashby, J. S. (2005).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go defens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9*(3), 41-54.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llis, A. (1958). Rational psychotherap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9*(1), 35-49.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5-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92-200.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 Horney, K. (1951). *Neurosis and human growth: The struggle toward self-real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Ipsos, MORI. (2016). *Global trends survey*. Retrieved from <https://www.ipsosglobaltrends.com/category/future-and-generations>
- Methikalam, B., Wang, K. T., Slaney, R. B., & Yeung, J. G. (2015). Asian values, personal and family perfectionism, and mental health among asian indians in the united state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3), 223-232.
- Mobley, M., Slaney, R. B., & Rice, K. G. (2005). Cultural validity of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for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29-639.
- Parker, W. D. (1997). An empirical typology of perfectionism in academically talented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3), 545-562.
- Perera, M. J., & Chang, E. C. (2015). Ethnic variations between asian and european americans in interpersonal source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t's not just about parent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1), 31-3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ce, K. G., & Ashby, J. S. (2007). An efficient method for classifying 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72-85.
- Rice, K. G., Ashby, J. S., & Gilman, R. (2011). Classifying adolescent perfectionist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563-577.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04-314.
- Rice, K. G., & Lapsley, D. K. (2001). Perfectionism, coping, and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2), 157-168.
- Rice, K. G., & Slaney, R. B. (2002). Clusters of perfectionists: Two studies of emotion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1), 35-4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ronic, A., & Reeve, R. A. (2012). More evidence for four perfectionism subgrou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4), 437-442.
- Slaney, R. B., & Johnson, D. G. (1992). *The almost perfec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3), 130-145.
- Spielberger, C. D., & Gorsuch, R. L.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adults: Manual and sample: Manual, instrument and scoring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C.,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 Stumpf, H., & Parker, W. D. (2000). A hierarchical structural analysis of perfectionism and its relation to 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5), 837-852.
- Triandis, H. C. (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6), 907-924.
- Twenge, J. M. (2014). *Generation me: Why today's young Americans are more confident, assertive, entitled and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2nd ed.). New York, NY: Atria.
- Verhaeghe, P. (2012). *What about me? The Struggle for identity in a market-based society*. London, UK: Scribe Publications.
- Wang, K. T. (2010). The Family Almost Perfect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mparing Asian and European America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 186-199.
- Wang, K. T. (2012). Personal and family perfectionism of taiwanese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gra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4), 305-314.
- Wang, K. T., Slaney, R. B., & Rice, K. G. (2007). Perfectionism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rom taiwan: A study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hievement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279-1290.
- Wang, K. T., Yuen, M., & Slaney, R. B. (2009). Perfectionism, depressi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2), 249-274.
- Yeh, C. J., & Hwang, M. Y. (1999).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Asian Pacific American ethnic identity and self: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 D. S. Sandhu (Ed.),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s: issues and concer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p. 59-69). New York: Nova Sciences.

원 고 접 수 일 : 2019. 06.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13

게재결정일 : 2019. 11. 26

Classification of the Cluster Types of Perfectionism: Sources of High Standards

Yoon-Ho Choi

Catholic University / Master's degree student

Nam-Woon Chung

Catholic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sults of existing studies classifying perfectionism clusters using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 and to examine the addition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PP) as a cluster variable to identify clusters based on the source of the high standards. Participants were 385 university students. As a result of classifying clusters using the APS-R, Adaptive Perfectionism (AP), Maladaptive Perfectionism (MP), Non-Perfectionism (NP), and Negative Self-evaluation (NS) were derived. AP/NP was associated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lower depression and anxiety than MP/NS. By adding the SPP as a cluster variable, AP, MP I, MP II, NP, and NS were derived. MP was subdivided into MP I and MP II according to the level of SPP, with MP I showing more neg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n MP II. However, N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MP II.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m, Cluster analysis, Almost perfect scale-revised(APS-R),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